해외포교, 국가별매뉴얼 만들자

해외포교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해외포교가 현지인보다는 한국교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종단의 체계적 관리 없이 개인적 인연에 기인해 체계성 없이 해외포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한 반성이 이제는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논의의 발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외포교에 나선 동기로 신도나 스님의 초청이 45%, 외국여행중의 인연이 20% 등이며, 해외포교에 원을 세우고 개척한 경우는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또한 종단차원이 아닌 개인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경우다.

그러다 보니 현지 언어능력의 취약과 해외포교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이 제대로 된 해외포교를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지인 포교 전문성 갖춰야
관리·지원 대안 필수 구체적

한국불교의 해외포교는 현재 25개국에 1백90여개의 사찰에서 240여명의 스님과 국제포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해외포교의 비체계성과 현지인 교화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외포교에 대한 종단차원의 제도적 관리와 지원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해외포교전문인을 양성시켜야 하며, 외국어로 된 경전이나 포교서적의 발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이제는 해외현지포교의 안내서가 될 각 국가별 해외포교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아진다. 누구라도 일일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해외포교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구력(自救力)을 갖게 할 매뉴얼은, 그동안의 해외포교에 대한 반성과 경험들을 총정리하고, 현지의 정보와 포교노하우를 공유하며, 현지포교를 위한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모델과 해외포교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해외포교의 원력을 세운 스님이나 포교사를 위한 지침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신심만으로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매번 비슷한 시행착오를 범함으로 야기되는 시간적 물적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해외포교의 경험 있는 스님이나 국제포교사들의 기록과 증언이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또한 요즈음의 세계불교의 추세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불교로에서 이러한 흐름에 상응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 또한 매뉴얼 제작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내용들일 것이다.

이웃종교 개신교의 경우에는 주요 선교 대상 국가를 선정, 다양한 매뉴얼을 제작해 해외선교에 뜻을 두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다. 개신교의 선교활동이 활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들은 한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교단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 무외(진각종 포교부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東大이사회 '변화' 선택…논란 예고

상임이사제 신설·정각원장 외부인사 가능 등 의견 팽팽

학교법인 동국대가 8월 12일 열린 202차 이사회에서 이사장 보좌의 필요성을 이유로 '상임이사' 제도를 신설했다. 또 보직교수 가운데서 임명해오던 정각원장을 외부스님도 맡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사회 기능을 원활히 하고, 종단 내 보다 훌륭한 스님을 정각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한 종단과 학교 안팎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이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상임이사제도 신설을 주장한 일부 스님들은 "재단의 규모가 너무 커져 이사장이 혼자 모든 행정적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원로급인 이사장을 대신해 사소한 재단 업무를 일일이 챙길 수 있는 젊은 이사가 필요하다"며 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장윤 스님은 "지금 시점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상임이사제도를 강행하면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처장의 역할만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밖에 정각원장의 자격을 기존 부교수 이상의 교원뿐만 아니라 승랍 30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한 부분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각원장의 역할과 권한이 단순히 교내 법당의 책임자가 아닌 종립대학의 이념과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는 자리라는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불교대 한 관계자는 "자칫 정각원장이라는 교내보직이 종단 정치의 창구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문을 표시했다. 실제로 정각원장과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있는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의 교목처장, 교목실장은 모두 재직교수만 임명하고 있어 학교와 종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관개정과 신규 교원임용 문제와 관련해 일부 이사의 문제제기가 계속됐지만 대부분 안건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이사회 운영이라면 앞으로 재단운영은 몇몇 스님들의 일방통행 형태로 흐를 수 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육부의 일산불교병원 교비환수 처분에 대한 동국대측의 조치 사항 보고도 이뤄졌다. 동국대 재단은 이날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교비 전용과 관련, 현 총장을 경고 조치키로 했다. 8월 10일 교육부로부터 최종 확정 통보된 교비 금액 341억 5900만원에 대한 환수 계획도 승인됐다.

동국대는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2005년 2월까지 재단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100억원을 우선 학교세입으로 회계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금액은 포항병원 신축부지와 경주 용강동 한방병원 매각 등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2006년 12월까지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동국대는 이같은 환수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8월 13일 교육부에 통보했다.

신규 교원 22명과 산하 중·고교 학교장의 인사도 이뤄졌다. 2학기 전임교원으로 인도철학과 황순일, 역사교육학과 윤선태, 윤리학과 허남결 등 22명이 새로 임용됐다. 명성여고 교장에는 박명순 명성여중 교장이, 명성여중 교장에는 김정옥 명성여고 교감이 각각 선임됐다.

조용수 기자

일산병원 직제승인

교육부는 최근 동국대 불교병원의 직제개편 정관개정안을 정식 승인했다.

지난 2월 27일 병원개원의 핵심 내용인 직제 개편안이 동국대 이사회를 통과한지 5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동국대는 병원장 선임,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장비 수급 등의 진행이 가능해져 내년 상반기 불교병원 개원의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종립大 2학기 수시모집
동국대 불교계추천 54명

동국대, 위덕대, 금강대 등 종립대학들이 2005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을 시작했다.

동국대는 오는 9월 1일부터 불교계 추천 불교학부 32명을 포함한 550명 정원의 수시 2학기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모집전형은 일반 우수자 63명, 불교계 추천 54명, 군경·소방 유자녀 9명, 토익·토플 등 외국어 우수자 48명, 문학·체육특기자 35명, 체육기능 우수자 5명, 실업계 고교출신자 56명, 장기 취업자 70명 등으로 9월 8일 17시까지 동국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8일 학교 홈페이지(www.dongguk.edu)를 통해 발표한다.

위덕대는 9월 6~17일 수시 2학기 원서를 접수한다. 불교문화학부 35명, 게임학부 32명, 사회체육학부 66명 등 주·야간 20개 학부에서 총 885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9월 1일부터 교부되며,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uu.ac.kr), 우편, 대학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금강대는 9월 13~15일 원서 접수를 통해 불교문화학부 16명, 통역학부 18명, 사회과학부 16명 등 3개 학부에서 50명을 선발한다. 원서 교부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는 9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www.geumgang.ac.kr)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봉영·조용수 기자

中 고구려사 왜곡 "유감"

조계종 '역사 바로세우기 앞장' 표명

조계종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8월 9일 대변인 여연스님(총무원 기획실장) 이름의 입장에서 "최근 중국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정책은 인류가 염원하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며 "우리 민족사를 다시금 정립하고 중국정부의 과도한 역사 왜곡 시도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고구려 불교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장 적극 개최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북한 불교도와 교류 확대 △고구려 불교와 문화재 등에 대한 공동 연구 상정 △올 10월 22일부터 4일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제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3국 공동의제로 발해를 포함한 고구려 불교사 연구 제안 등을 구체적 실천 과제로 내놓았다.

남동우 기자

중국불교 수행체험
종단협, 광화사 등 방문

중국불교 수행체험 행사가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복건성 광화사와 불학원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와 중국불교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중국불교와 교류확대 일환으로 중국사찰에서의 현장 수행체험과 사찰 체험, 성지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하안거 2185명 정진
조계종 수좌회 밝혀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는 불기 2548년 하안거 결제 선원 91곳과 정진대중 2185명의 방함록을 공개 했다.

지난 계미년 동안거에 선원 93곳에 2256명의 스님이 방부들 들인 것과 비교하면 2곳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갑신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비구선원은 해인총림선원등 57곳에 1025명, 비구니 선원은 견성암 선원 등 34곳에 846명이었다. 이밖에 이번 방함록에는 결제대중을 외호하는 소임스님 비구 201명, 비구니 114명의 명단도 따로 실렸다.

조용수 기자

"의원권한축소·기명투표제 필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계종 종회개혁 촉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하 실천승가회, 의장 효림)가 조계종 중앙종회 개혁을 위한 종헌·종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실천승가회는 8월 10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회의원의 권한 축소와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종헌 38조 2항)'는 조항을 폐지하고 선거와 인사에 관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의 표결방식(종법 72조)을 기명 방식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종헌개정안'에 대해서도 기명투표를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실천승가회 부의장 퇴휴 스님은 "사회적으로도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남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가 행해지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명투표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곤지암 우리절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1]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8월 8일-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2004년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2]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3]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2004년 8월 15일-8월 22일(만7일간)

금주의 발원

[새벽쇳송-2]
이내생명 다하도록 다른생각 전혀없이
거룩하신 아미타불 오롯하게 따르오리
마음일랑 끊임없이 옥호광에 이어지고
순간순간 변함없이 금색상에 닿아있네

내가잡은 이염주는 온법계의 묘관이며
허공으로 끈을삼아 꿰지못함 전혀없네
평등하신 노사나불 안계신곳 어디랴만
서방에서 아미타불 관하고또 구하려네

사십팔원 원력으로 아름답게 장엄하신
서방정토 극락세계 그세계의 주인이신
무 량 수 여래불께 두손모아 귀의하고
무 량 광 여래불께 마음모아 의지하리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